

#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과 대아세안 협력 전망

**최인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 (iachoi@kiep.go.kr, 044-414-1049)

**장한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hanbyeolj@kiep.go.kr, 044-414-1245)



## 차 례

1.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추진 배경
2.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 주요 내용

- ▶ 최근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이행계획을 발표함.
  - KASI는 한-아세안 중점 협력 분야와 한국판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인 ‘자유·평화·번영’을 연계한 8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됨(①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②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 한-아세안 협력 제고 ③ 한-아세안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④ 한-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⑤ 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미래 분야 협력 확대 ⑥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⑦ 미래 번영을 이끄는 차세대 교류 증진 ⑧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 각종 협력재원 확충).
- ▶ KASI는 최근 한국이 지속해온 아세안 중시정책 기초를 재확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의 정치·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대아세안 정책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됨.
  - 과거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아세안과의 교역·투자 증진에 치중되었던 데 반해, KASI는 정치·안보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됨.
  - 정치·안보 협력이 두드러진 것은 KASI가 한국 인태 전략의 세부 지역 전략으로 추진되는 만큼, 인태 지역 규칙 기반 질서와 역내 평화 증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KASI는 EAS, ARF, ADMM-Plus 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활성화와 함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주류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의 당면 현안인 ‘아세안 중심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측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됨.
- ▶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가치를 제고하고, 배터리, 전기차 등 한-아세안 간 전략적 이해가 맞닿아 있는 미래 산업 협력을 강조한 것이 주목됨.
  -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자원 보유국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가 예상되며, 한국과 아세안 주요국이 전기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가 한-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 KASI는 그간 미진했다고 평가받아온 한-아세안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되나, 정치·안보 협력이 빠른 가시적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은 정책의 성과 도출·확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아세안의 핵심 현안인 해양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정보통신 기반의 포괄안보 대응역량 강화와 사이버안보 분야의 협력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음.
- ▶ KASI는 인태 지역 평화·번영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KASI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1.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추진 배경

■ 2023년 4월 11일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전략하에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이행계획을 발표함.

- 한국정부는 ‘글로벌 중추국 도약’을 목표로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을 추진 중이며,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인태 전략의 세부 전략으로 제시됨.
  - 한국의 인태 전략은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기존의 동북아를 넘어 인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을 선언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최근 발표됨.

■ 인태 지역 요충지에 위치한 아세안은 한국의 제2대 교역 및 제3대 투자 파트너이자 역내 다자협력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한국의 인태 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꼽힘.

- 아세안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세안+3(한·중·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다자협력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
  - 아세안이 위치한 말라카 해협은 한국의 주요 해상교통로로서, 아세안 지역의 안정은 한국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아세안은 한국에 △교역 2위(2022년)<sup>1)</sup> 및 3위 투자 대상(2022년) △우리 국민의 1위 방문지(2019년 기준) △양자 ODA 최대 공여 지역(2020년, 2021년 각각 약 6억 달러) 등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높은 협력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

표 1.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2022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명	수출	수입	비중
1	중국	155,789	154,576	21.9
2	아세안	124,888	82,530	14.7
3	미국	109,766	81,785	13.5
4	일본	30,606	54,712	6.0
5	호주	18,753	44,929	4.5
6	대만	26,198	28,275	3.8
7	독일	10,068	23,615	2.4
8	홍콩	27,651	1,878	2.1
9	인도	18,870	8,897	2.0
10	멕시코	12,654	8,577	1.5

표 2. 한국의 주요 FDI 투자대상국(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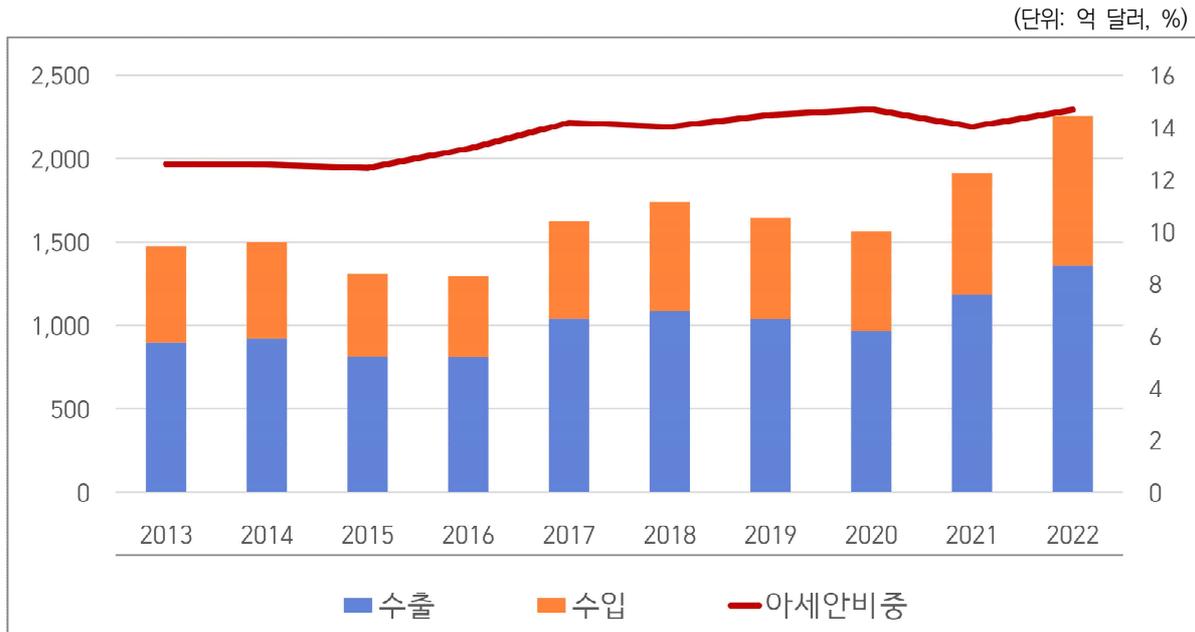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명	투자액	비중
1	미국	27,769	36.0
2	케이만군도	9,382	12.2
3	아세안	8,744	11.3
4	중국	6,589	8.5
5	룩셈부르크	4,938	6.4
6	캐나다	2,452	3.2
7	헝가리	1,841	2.4
8	저지	1,589	2.1
9	건지	1,589	2.1
10	호주	1,494	1.9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무역통계서비스(검색일: 2023. 4. 24).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3. 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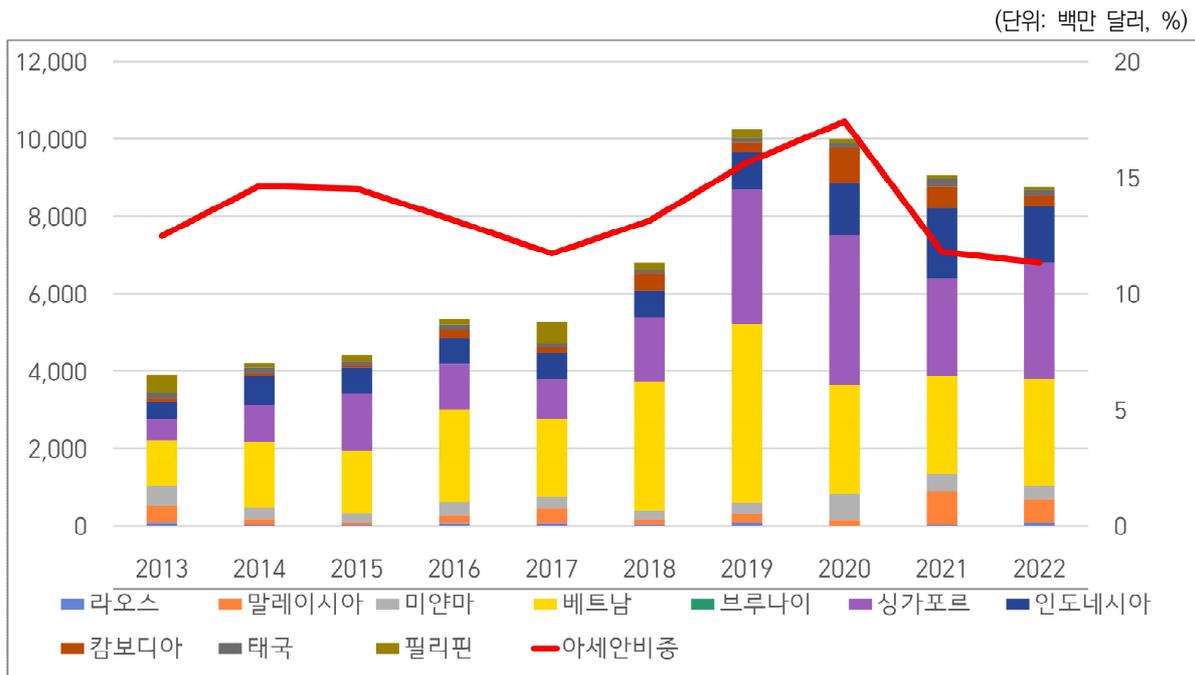
1) 개별국으로 보면 10대 수출 지역 순위 내에 베트남이 3위(약 609억 6,400만 달러), 싱가포르가 7위(약 202억 500만 달러)임(KOTRA 2022).

그림 1. 한국 대아세안 교역 추이(2013~22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무역통계서비스(검색일: 2023. 4. 24).

그림 2. 한국 대아세안 투자 추이(2013~22년)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 2023. 4. 22).

- ‘한-아세안 연대구상(이하 KASI)’은 기존 한국의 대아세안 중시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아세안과의 실질적·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인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국의 인태 전략 구상이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초 공개된 만큼, 아세안은 한국의 인태 전략 추진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가짐.
  - o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이 한국판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를 토대로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언급하였음.<sup>2)</sup>
- KASI는 기존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 중심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방, 해양안보, 방위산업, 기후변화 등 전통·비전통 안보와 더불어, 아세안의 미래 발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심화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sup>3)</sup>

## 2.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sup>4)</sup>

### 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개요

■ KASI는 한-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와 한국판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인 자유·평화·번영을 연계한 8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Indo-Pacific)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등 기존의 한-아세안 협력 성과와 아세안의 수요를 고려해 중점협력 분야를 식별함.
- 중점협력 분야는 △국방 △해양안보 △방위산업 △경제안보 △미래 통상 및 산업 △기후변화·환경 △보건 △소지역 협력 △정부 △인적교류 등이며, 이를 인태 전략의 3대 비전과 연계해 8대 중점 협력 과제를 선정함.

표 3.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8대 중점 추진 과제

분야	주요 내용
자유	①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②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 한-아세안 협력 제고
평화	③ 한-아세안 포괄안보 협력 확대 ④ 한-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번영	⑤ 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미래 분야 협력 확대 ⑥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⑦ 미래 번영을 이끄는 차세대 교류 증진 ⑧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 각종 협력재원 확충

자료: 외교부, 한-아세안 연대구상(2023)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2022. 11. 12), 「윤석열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검색일: 2023. 4. 24).

3) 외교부(2023. 4. 11), 「한-아세안 연대구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4).

4) 외교부(2023. 4. 11), 「한-아세안 연대구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4)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나. 8대 중점 협력 과제

### 1) 자유

#### ■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하고, 아세안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역내 자유 수호 및 다자질서 촉진에 기여할 것을 밝힘.
  -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파트너십 단계로, 아세안은 2021년에 중국, 호주와, 2022년에는 미국 및 인도와의 관계를 CSP로 격상하였으며, 일본은 올해 CSP 격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상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 확대, 외교부간 양자 정책대화 촉진, 2+2(외교·국방) 대화 형식 등을 통해 전략-안보 네트워크를 심화하고, 아세안 회원국과의 맞춤형 양자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임.
  - 회원국별 특성을 고려해 △국방·방산 및 해양안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기술협력 △디지털 및 미래 산업(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협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 아울러 동티모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회원국 지위 획득과 아세안의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아세안회원국은 2022년 11월에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받아들이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최빈국인 동티모르가 아세안회원국 지위 유지를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세안 역내뿐만 아니라 대화상대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 한-아세안 협력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의 인태 전략과 아세안의 AOIP 간 상호보완성을 모색하는 한편, 주요 대화상대국과의 대아세안 연계 협력을 강화

-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세안+1/+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임.
  -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하의 정상·고위급 관여를 지속하는 한편, △비상쌀 비축제(APTERR), 통화스와프(CMIM), 과학영재센터 등 아세안+3 협력 지속 이행 △EAS 행동계획 이행 △ARF 신뢰 구축과 예방외교 및 ADMM-Plus 7개 분과회의 활동에 대한 적극 참여 모색)
- 우리 정부는 한국판 인태 전략과 AOIP(표 4 참고) 간의 상호보완을 제고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 틀 속에서 AOIP 4대 중점 분야(△해양 △연계성 △SDGs, △경제 등)의 주류화를 지원하고 실질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아세안 정상들은 2022년 11월 AOIP의 4대 중점 분야를 주류화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sup>6)</sup>
  -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해 AOIP의 4대 중점 분야 협력을 활성화할 대표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힘.

5)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분과회의는 과장급 회의체로 PKO, 해양안보, 군의료, 대테러, 인도적 지뢰제거,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사이버 안보의 총 7개 분과로 구성됨.

6) ASEAN Secretariat(2022. 11. 11), “ASEAN Leaders’ Declaration on Mainstreaming Four Priority Areas of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within ASEAN-Led Mechanism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4).

- 한-아세안 협력 틀 외에도 미국, 호주 등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대아세안 정책대화를 활성화하고, 연계성과 SDGs 등을 중심으로 3각 협력(한-아세안-대화상대국)을 강화할 예정임.
- 한국은 이미 미국, 프랑스, 호주 등과 ‘아세안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아세안에 대한 상호 정책간의 연계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논의해왔음.<sup>7)</sup>

표 4. AOIP 4대 중점 분야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해양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분쟁을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예방 관리 및 해결</li> <li>-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협력 해양 연결성 지속 증진 △소규모 어촌공동체 지원 △해양산업 촉진 등을 위한 협력</li> <li>- 해양과학 기술협력, 연구개발 및 모범 사례 공유, 역량 강화, 해양쓰레기 관리 및 해양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등</li> </ul>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PAC 2025 발전을 위한 우선 협력 분야 모색을 통해 포괄적으로 연결된 지역 달성을 목표</li> <li>- 자원 동원을 위한 지역 민관협력(PPP) 개발</li> <li>- IORA, BIMSTECH, BIM-EAGA, ACMECS 등 기존 소지역 협의체와의 시너지 모색</li> <li>- Seamless ASEAN Sky 구축을 통한 아세안 항공 연계성 강화</li> <li>- 산학간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인적 연계성 강화</li> <li>-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이니셔티브를 통해 급격한 도시화 문제 해결</li> </ul>
SD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통한 SDGs 달성</li> <li>-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및 2030 UN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같은 지역개발 의제 연계 및 상호보완성 강화</li> <li>- 아세안 지속가능발전 연구 및 역내 관련기관과의 협력 증진</li> </ul>
경제·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남협력(삼각 협력 및 SSTC 포함)</li> <li>- 무역 촉진, 물류 인프라 및 서비스</li> <li>- 디지털 경제 및 국경간 데이터 흐름 촉진</li> <li>- 영세 및 중소기업 지원</li> <li>- 과학, 기술 연구 및 개발, 스마트 인프라</li> <li>- 기후변화 및 재난위험 관리</li> <li>- 고령화 대응 혁신</li> <li>- RCEP 등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을 통한 경제통합 심화, 재정 안정성 및 회복력 보장, 무역 및 투자 촉진</li> <li>- 4차 산업혁명 대비 협력</li> <li>- 영세·중소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 육성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li> </ul>

자료: ASEAN(asean.org)(검색일: 2023. 4. 23).

## 2) 평화

### ■ 한-아세안 포괄안보 협력 확대를 통해 인태 지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관여를 강화하고, 역내 규칙 기반 질서 수립에 기여

- 퇴역함 양도 및 후속 군수지원, 대테러·해적 대응 및 수색구조 훈련 등을 통해 아세안의 해양법 집행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아세안과의 연합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7)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한-프랑스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2021. 7), 「제2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결과(2022. 3), 「제2차 한-미 동남아 정책대화」 개최(2022.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3).

- 우리 정부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반대 △남중국해의 평화·안정과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보편적이고, 국제법에 의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밝힘으로써 역내 규칙 기반 질서 수립을 위해 아세안과 적극 협력할 것을 시사함.
- 이 외에도 아세안 주요국과의 양자 해양협력 채널을 신설하고, 해양오염 저감사업 등 해양 자원·환경 관리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 ARF, ADMM-Plus 메커니즘 내 사이버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아세안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역내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밝힘.
  - 2023년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한-아세안 국제협력 사업인 아세안 사이버실드(ACS) 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음.<sup>8)</sup>
- 호혜적이고 회원국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방산·군수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방위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한-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의 정례화 추진 및 국방차관회의의 연례 개최를 통해 역내 정세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국방협력계획 이행과 ADMM-Plus 메커니즘 참여를 통해 국방협력 확대할 계획임.
  -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의 12개 과제(△인적교류 △국방기관간 협력 △해양법 △사이버안보 △PKO △해양안보 △대테러 △화생방 △군의료 역량 △인도적 지원·재난대응 △지뢰·불발탄 △방산·군수협력)를 이행하는 동시에, ADMM-Plus의 분과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
- 북핵·북한 문제에 있어 아세안 각급 회의 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양자 고위급 교류를 통해 북핵·북한 문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3) 번영

### ■ 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미래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통상 및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강화

- 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디지털]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공동 데이터 협력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출범 △아세안 회원국 내 디지털 정부 협력 센터 운영 등을 추진
  -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용 태양광 충전 전기차(E-vehicle) 시스템 구축 등 아세안의 E-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 E-모빌리티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
  - [스마트시티] 2023~27년까지 약 540만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에 기반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 구축을 지원하고, 한국기업들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독려
- 디지털 통상을 포함해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고, 공급망 안정성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8) 아세안 역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약 3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980만 달러)이 투입될 예정임.

- 디지털 통상 연구 및 추가 자유화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디지털 통상협력을 포함한 FTA 개선 논의를 추진
-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 및 경제협력 채널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 및 복원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전기차, 청정경제 등 IPEF 관련 협력사업을 발굴

### ■ 기후·환경, 보건 등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소지역 협력에 대한 관여 확대

- 아세안의 환경·기후변화 위기 대응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환경·기후변화 문제에 관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및 한-아세안 메탄감축 협력사업(2023~26년, 약 1,900만 달러) 추진 △한-아세안 탄소중립·녹색전환 협력센터 설립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와의 기술협력 강화 △아세안 대기오염 대응사업(2023~26년, 약 1,100만 달러)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GTT)를 통한 환경협력 확대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 내실화<sup>9)</sup>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등 추진
- 한-아세안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사업(2022~26년, 약 500만 달러)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자 함.
- 수자원·환경·농업·농촌개발·산림 분야 등 메콩 지역 수요를 고려한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사업 발굴·이행을 통해 메콩 소다자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예아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체(ACMECS), 메콩우호국회의(Friends of Mekong) 등 메콩 지역 소다자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파트너국과의 연계 협력을 도모

### ■ 미래 번영을 이끄는 차세대 교류 증진을 통한 미래 인적자원 육성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 아세안 장학생 초청사업과 여성 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훈련(TVET) 프로그램 지속·확대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 인적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차세대 인적교류 및 스포츠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아세안 간 지속가능한 우호적 관계 틀을 마련할 계획임.
  - 한-아세안센터 및 아세안문화원 등을 통한 문화·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YCAFE(Youth Camp for ASEAN & Friends' Engagement) 등의 차세대 인적교류 사업 지속·강화
  - 아세안회원국의 스포츠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한-아세안 간 상호 우호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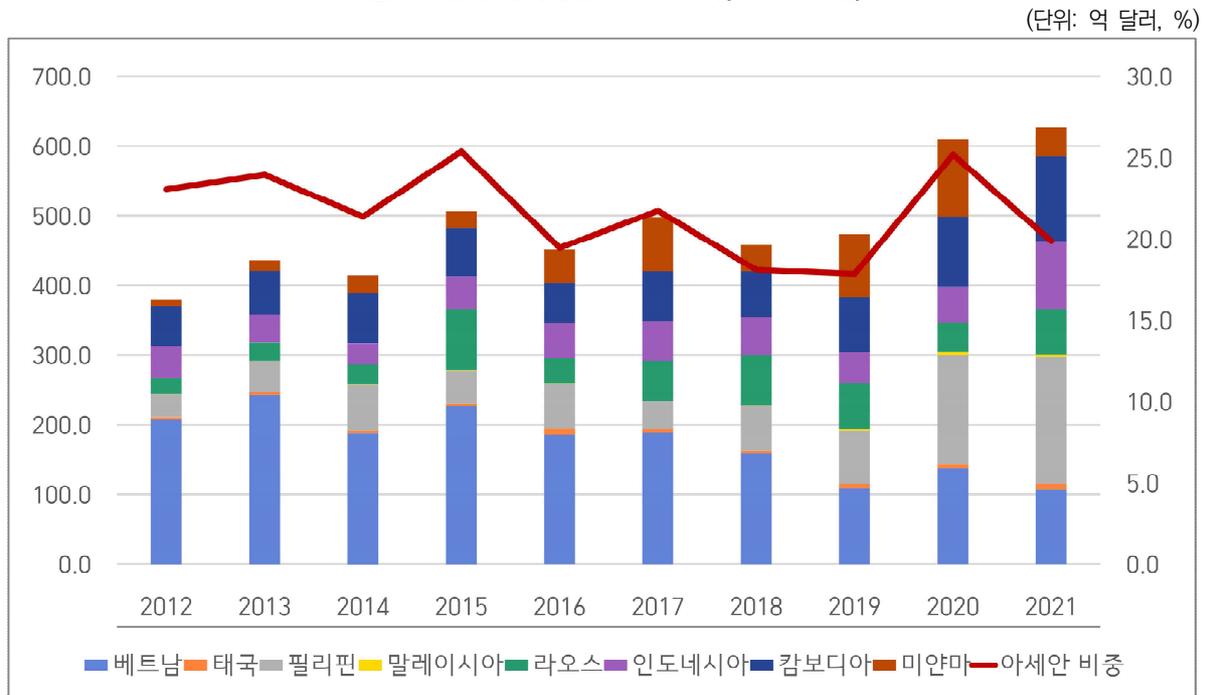
### ■ 대아세안 ODA 지속 확대 및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배증 등 협력자원 확충을 통해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 한국정부는 2027년까지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연 3,200만 달러,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 달러,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을 연 600만 달러로 증액할 예정임.

9) 2022년 10월 제2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정례 대화에서 양측은 해양환경 협력을 포함한 구체적인 환경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외교부 온라인 보도자료(2022. 10. 6), 「제2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 개최」(검색일: 2023. 4. 23).

-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은 한-아세안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0년에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까지 한국의 기여 금액은 1억 2,400만 달러이며, 423건의 프로젝트가 실시됨.<sup>10)</sup>
  - ‘한-메콩 협력기금(MKCF)’은 한-메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메콩 5개국의 개발격차 완화 및 연계성 증진에 힘쓰고자 신설된 기금이며, 한국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942만 달러를 공여하였음.
  -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BKCF)’은 2021년에 해양동남아의 포용적·균형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신설되었으며, 2022년까지 총 400만 달러를 공여하였고, 10건의 협력사업이 선정된 바 있음.
- 아세안 6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은 한국 ODA 중점협력국으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유무상 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한국의 대아세안 ODA는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2021년 기준 한국 전체 ODA에서 19.8%를 차지
  - 우리 정부는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회복에 중점을 둔 EDCF 사업을 발굴하고, EDCF 사업 대형화를 위한 국별 EDCF 기본약정(F/A) 개선을 추진할 예정
  - 무상원조와 관련해서는 그린, 디지털, 보건 분야 사업 확대 및 새로운 대표 사업 발굴을 모색하고, 사업간 연계 및 주요 파트너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사업간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

그림 3. 한국 대아세안 ODA 추이(2012~21년)



주: 총 지출액 기준.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https://stats.odakorea.go.kr/portal/odakorea/main>(검색일: 2023. 4. 22).

10) 한-아세안 협력기금 홈페이지(검색일: 2023. 4. 24).

### 3. 평가 및 전망

■ KASI는 최근 한국이 지속해온 아세안 중시정책 기조를 재확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의 정치·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존의 대아세안 정책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됨.

-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정부는 KASI를 통해 아세안 중시정책 기조를 이어나가며 한국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였음.
  - 과거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은 정부 변화에 따라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sup>11)</sup> KASI는 기존의 신남방정책을 보완·강화한다는 점에서 한국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을 높임.
  -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2022. 11. 11)’에서 한국판 인태 전략과 KASI 추진계획을 발표한 점은 아세안이 한국 인태 전략 추진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방증함.
  - 한-아세안 협력기금, 한-메콩 협력기금,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 및 대아세안 ODA 확대방침 또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를 뒷받침함.
- 과거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이 아세안과의 교역·투자 증진에 치중되었다면, KASI는 아세안과의 정치·안보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됨.
  - 신남방정책도 3P(People·Prosperity·Peace)의 ‘평화’ 비전을 통해 한-아세안 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 하기는 했으나,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역내 안보 질서 변화에 대한 전략적 공조보다는 한반도 문제와 기능적 협력에 치우친 측면이 컸음.
  - 반면 KASI는 국제 규범과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한국 인태 전략 비전 하에,<sup>12)</sup>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남중국해의 평화·안정과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국제법에 의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지를 통해 아세안과 규칙 기반 질서 증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힘.
  - 또한 신남방정책에서는 안보 관련 협력 비중이 작았던 데 반해, KASI의 경우 8대 중점 과제 중 절반이 정치·안보 협력 과제로 구성됨.<sup>13)</sup>
- 다만 KASI의 안보협력 이행계획의 다수가 기존의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KASI를 통해 한-아세안 안보협력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ARF, EAS, ADMM-Plus 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매개로 아세안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해왔으며, 한-아세안 국방 장·차관회의 개최와 한-아세안 국방협력계획을 포함해 기존 정책의 성과를 지속·강화하는 과제들도 상당수 눈에 띈.

■ 과거 대아세안 정책과 비교해 정치·안보 협력이 두드러진 것은 KASI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한국의 인태 전략 틀 속에서 이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11) 나용우 외(2020),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pp. 21-22,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외교부(2022. 12. 28),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4).

13)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①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② 한국형 교육 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 개발 ③ 쌍방향 문화 교류 촉진 ④ 상호 호혜적인 무역·투자 기반 구축 ⑤ 농어촌·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⑥ 미래산업 협력 ⑦ 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 협력의 7대 중점협력 과제를 담고 있는데, 안보 관련 이니셔티브는 ‘⑦안전과 평화 증진을 위한 초국가 협력’이 유일하며, 협력 범위도 비전통안보 분야에 한정되었음.

- KASI가 인태 전략의 지역별 세부 전략 중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인태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 및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 기존의 한-아세안 안보협력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KASI에서는 북핵·북한 문제보다 광범위한 역내 질서와 아세안이 당면한 안보 현안 비중이 더욱 높아졌는데, 이 또한 한국이 한반도를 벗어나 한국 안보협력의 지평을 인태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시사함.
  - 한국 인태 전략의 ‘자유’ 비전은 압제와 강요가 아닌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평화’ 비전은 북핵 문제 외에도 대테러, 해양, 사이버, 보건안보 등 복합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sup>14)</sup>
  - KASI가 내세우고 있는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 활성화 △한-아세안 포괄안보 협력 확대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강화 등도 이러한 인태 전략의 비전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KASI는 한-아세안 양자 협력 외에도 아세안 주요 대화상대국과의 연계 협력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 한국 인태 전략의 주요 파트너들과 다층적 협력을 펼침으로써 인태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여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됨.

■ KASI는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활성화, AOIP 주류화 등 아세안의 당면 현안인 ‘아세안 중심성 강화’와 직결되는 협력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 측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은 Quad, AUKUS 등 소다자 협의체의 출현이 역내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세안 중심의 포용적인 역내 질서를 지향하고 있음.
  - 아세안은 2019년 6월 인태 지역 질서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이 담긴 AOIP를 발표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지역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천명하였음.
  - 또한 AOIP는 인태 지역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협의체를 설립하기보다는 EAS, ARF, ADMM-Plus 등 기존 아세안 다자협의체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인태 지역 협력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우회함으로써 아세안 중심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임.
- KASI는 아세안 중심성과 AOIP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와 AOIP 주류화를 위한 실질 협력사업 발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아세안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한국의 인태 전략이 배타적 협력을 지향하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조응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아세안측의 우려를 해소해줄 것으로 예상됨.

■ 경제협력 부문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통상·투자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아세안의 가치를 제고하고, 한-아세안 간 전략적 이해가 맞닿아 있는 미래 산업 분야를 강조한 것이 주목됨.

14) 외교부(2022. 12. 28),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24).

-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2022. 11), 베트남(2022. 12)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올해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와의 MOU 체결을 추진 중임.<sup>15)</sup>
-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이 전기차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또한 한-아세안 경제협력 고도화를 이끌 중점 협력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원료인 니켈의 최대 생산국으로, 이미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운영 중이며,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을 추진 중임.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니켈 매장량을 바탕으로 니켈 채굴부터 완성형 전기차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으로, 한-인도네시아 간의 전기차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태국도 전기차 제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고 베트남 역시 2022년 3월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며 전기차 육성을 본격적으로 모색함에 따라, 한-아세안 간 전기차 협력 기반 조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sup>16)</sup>

■ KASI는 한국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그간 미진했다고 평가받아온 한-아세안 정치·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안보 협력이 빠른 가시적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은 정책의 성과 도출·확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아세안으로서는 KASI가 인태 전략의 하부 전략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기존의 대아세안 정책을 더욱 보완·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아세안 협력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온 전략·안보 협력 요소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한 점은 아세안 국가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임.
- 다만 정치·안보 협력 분야가 경제, 사회·문화와 달리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은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국은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대아세안 안보 협력에서 뒤쳐진 경향이 있으며, 방산협력을 제외하면 가용 자원과 경쟁력이 많지 않은 만큼, 한국의 안보적 역할과 기여를 부각시킬 플랫폼 사업 발굴·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의 핵심 현안인 해양안보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반의 포괄안보 대응역량 강화와 사이버안보 분야의 협력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퇴역함 양도 및 후속 군수 지원, 해적 대응 및 수색구조 역량 강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정보 공유 및 대응 역량 강화 등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확대해나가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 11. 6), 「한-인니, 디지털·공급망·기후변화 협력... MOU 10건 체결」, 온라인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 12. 6),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탄소중립 등 협력 강화」, 온라인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 2. 13), 「정부-업계 공동으로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23년 통상 10대 과제 발표」, 온라인 보도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4. 25).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3. 30), 「비즈니스 인사이트 아시아 전기차 허브로 도약, 태국 전기차 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 1. 30), 「비즈니스 인사이트 성장 잠재력을 가진 베트남 전기차 산업」(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4. 23).

해 역내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플래그십 사업을 발굴·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한-아세안 국방 장·차관회의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2+2(외교·국방) 대화 채널 확대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안보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KASI는 인태 지역 평화·번영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가능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KASI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KASI는 한국이 인태 전략 추진을 위해 처음 공개한 세부 지역 전략으로, 향후 인태 지역 평화와 번영에 대한 한국의 역할 제고를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인태 전략 중점 협력 대상지 중 지역별 세부 전략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발표된 것은 KASI가 유일함.
-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의 주요국들도 아세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KASI는 인태 지역 주요 파트너들과의 연계 협력을 추동하는 핵심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KASI가 지향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한-아세안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간의 균형적인 협력 추진이 필요함.
  - 정치·안보 협력 과제가 대폭 강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사회·문화의 경우 기존 사업 지속 외에 신규 플래그십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움.
  - 지속가능한 한-아세안 관계를 위해서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미래 세대 교류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한-아세안 간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대아세안 정책이 대통령직속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추진되었던 데 반해 KASI는 부처간 대아세안 협력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기관을 따로 설립하지 않은 만큼 디지털, 환경·기후 변화 등 크로스 섹터 이슈를 다룰 범부처 협의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디지털 분야의 경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수요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를 포함한 안보 수요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주도할 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KIEP**